

#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와 문화콘텐츠

김대현\* · 김미선\*\*

## 차 례

1. 머리말
2. 호남유배인과 문헌자료
  - 2.1. 호남유배인의 현황
  - 2.2.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
3.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의 문화콘텐츠화
4.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호남유배인과 그들이 남긴 문헌자료의 현황을 살피고, 문헌자료의 활용으로서 문화콘텐츠화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먼저 호남유배인 928명의 시기별, 지역별 현황을 살폈는데, 시기별로는 7세기 1명, 12세기 6명, 13세기 8명, 14세기 26명, 15세기 114명, 16세기 76명, 17세기 112명, 18세기 274명, 19세기 279명, 20세기 32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9명으로 1%에 미치지 못하고, 전남은 685명으로 67%, 전북이 83명으로 8%, 제주가 239명으로 23%를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배인이 많은 전남지역 안에서도 제주, 신안, 진도, 완도 등 일부 섬 지역에 집중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 중 주목되는 것으로 문집, 일기, 시가집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집은 106종을 확인하였으며, 유배지에서 쓴 한시가 시록(詩錄) 형태로 들어있는 문집, 유배지에서 사람들과 주고 받은 편지가 다수 수록된 문집, 유배지에서 쓴 일기나 유기, 유배와 관련한 상소문이 수록된 문집을 다수 확인하였으며, 많진 않지만 유배가사를 담고 있는 문집도 볼 수 있었다. 일기도 유배인의 구체적인 생활과 감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큼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유배인이 호남 유배지에서 쓴 시조·가사를 모은 시가집과 유배지에서 집필한 학술적 저술도 의미 있는 문헌자료라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의 활용으로서 문화콘텐츠화를 살폈다. 현대에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고 호남유배인 문헌자료가 문화콘텐츠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

\* 전남대학교

\*\* 전남대학교

이다.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의 구체적 예시를 통해 문화콘텐츠화를 살펴본 결과 미디어콘텐츠, 관광 콘텐츠, 교육콘텐츠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호남, 유배인, 문헌자료, 문집, 유배가사, 유배한시, 유배일기, 문화콘텐츠

## 1. 머리말

유배(流配)는 벽지(僻地), 절해고도(絶海孤島), 원지(遠地)에 처하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고독 속에서 치르도록 하는 형벌이다.<sup>1)</sup> 오형(五刑) 가운데 사형에 버금가는 매우 가혹한 것으로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유배형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sup>2)</sup> 그런데 유배인을 현대의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학문적 지식이 뛰어난 선비들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유배에 처해진 경우가 많았고, 그들은 유배지에서 뛰어난 문학적·학술적 성과를 남기거나 지역민과 교류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유배를 당했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 수학하였고, 그가 유배지에서 쓴 편지는 번역되어 현대의 교양서로 읽히고, 그의 저술은 지금도 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유배인과 그들이 끼친 영향의 중요성은 이미 인식이 되어 경남 남해에는 2010년 유배문학관이 개관되었다. 그리고 유배에 관한 역사적 사실 관계 연구<sup>3)</sup>, 유배인들의 생활에 대한 연구<sup>4)</sup>, 유배인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sup>5)</sup>, 유배인의 현대

1) 신규수,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제2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146쪽.

2)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제67집, 역사문제연구소, 2004, 264쪽.

3) 지철호, 「조선전기의 유형」, 『법사학연구』 제8집, 한국법사학회, 1985;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 『사학연구』 제55·56집, 한국사학회, 1998; 장선영, 「조선시대 유배와 절도정배의 추이」,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장선영, 「조선시대 유형과 절도정배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4집, 역사문화학회, 2001;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제67집, 역사문제연구소, 2004; 신규수,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제2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등.

- 4) 고창석 외,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화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양진건, 「제주유배인의 개화교화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23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0; 임학성, 「18세기 단성현에 정배된 죄인과 그 가족의 생활」, 『고문서연구』 제18집, 한국고문서학회, 2000; 심재우, 「조선 후기 단성 지역 정배인의 존재 양태」, 『한국학보』 제27집, 일지사, 2001; 이민홍, 「우암의 장기유배생활 실상과 저작활동」, 『한국한문학연구』 제27집, 한국한문학회, 2001; 고석규, 「조희룡의 임자도 유배생활에 대하여」, 『도서문화』 제24집, 목포대도서문화연구소, 2004; 이준근, 「흑산도 전승설화로 본 면암 최익현과 손암 정약전의 유배생활」, 『논문집』 제11집, 목포해양대학교, 2003; 류창규, 「나주 회진 유배시절 삼봉 정도전의 유배지 사람과의 소통과정-농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정체성 찾아가기」, 『역사학연구』 제27집, 호남사학회, 2006; 이향준, 「호남지역 유배 지식인의 몇 가지 양상」, 『호남문화연구』 제43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8; 이옥희, 「유배인의 기록을 통해 본 진도 지역의 민속문화」, 『남도민속연구』 제19집, 남도민속학회, 2009; 최성환, 「유배인 김약행의 <유대후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제36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김경옥, 「간정일록」을 통해 본 김령(1805-1866)의 임자도 유배생활」, 『도서문화』 제37집, 목포대학교 도서관학연구원, 2011; 박명희, 「미암 유희춘 시문에 나타난 중성 유배기 활동 양상」,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심재우, 「19세기 전반 평안도 지역 유배인의 성격과 유배행정」, 『평안감영기록』 순조대 기사 분석」, 『한국문화』 제5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정진영, 「섬, 풍요의 공간-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임자도 생활」, 『고문서연구』 제43집, 한국고문서학회, 2013; 최성환, 「두류단을 통해 본 김평묵의 지도 유배생활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제5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등.
- 5) 양순필, 「이조유배문학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고정우, 「동계 정은의 유배한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고정우, 「정은의 유배한시 연구」, 『탐라문화』 제8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김경국, 「면암 최익현의 한시 연구-유배한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태수, 「추사의 유배시 연구」, 『한문학논집』 제10집, 근역한문학회, 1992; 이재식, 「유배가사연구-작품에 나타난 소재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정주, 「유배가사 표현어휘의 특성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41집, 한국언어문학회, 1998; 정진태, 「유배가사에 나타난 자연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한창훈,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기 인간과 그 문학적 성격」, 『제주도연구』 제18집, 제주학회, 2000; 이현주, 「유배가사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용창선, 「윤선도의 한시연구-유배와 은거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은지, 「이행의 유배시에 나타난 정서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우부식, 「유배가사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종묵,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제9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 제9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최재남, 「유배체험의 내면화와 시적반응」, 『한국한시연구』 제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김지성, 「조선 후기 중인층 유배가사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승복, 「유배체험의 형상화와 그 교육적 의미-조선 후기 국문 일기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이정규, 「유배시를 통해본 이주의 의식향」, 『인문학연구』 제34집,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윤재환, 「조선 후기 유배경험의 시적형상화」,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정시열, 「조선조 제주도 유배문학의 위상」, 『한국고전연구』 제2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허경진, 「새로 발견된 손암 정도전의 시문집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제3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2; 김영진, 「유배인 심

적 활용에 대한 연구<sup>6)</sup> 등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유배길을 가는 과정, 유배의 추이, 유배인의 사례 등 유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유배가사, 유배한시, 유배일기와 같은 작품이 어떠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유배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개별 유배인들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유배인이 얼마나 되며, 그들이 남긴 문헌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는 그동안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 유배인의 전체적인 현황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유배인을 통합하는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거대한 작업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당 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일정 지역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고, 여러 지역군의 연구가 합해졌을 때 유배인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그 일환으로 호남지역에서 유배생활을 한 유배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sup>7)</sup> 호남은 한양과 거리가 멀고 제주도, 진도, 완도 등 많은 섬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유배지로서 역할이 컸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유배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 하더라도 소논문 한 편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본

노승의 고독과 문필로써의 소수 유배일기 『남천일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제37집, 근역한문학회, 2013;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중호, 「유배문학의 산실, 남해도-김구, 김만중, 류의양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31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양정화, 「유배가사의 담론특성과 사적 전개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영숙, 「해기웅 김령의 한시연구 『간정일록』의 유배시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제48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5; 주혜린, 「조선후기 유배가사의 서술방식과 내면의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등.

- 6) 강봉룡, 「임자도 우봉 조희룡 적거지의 관광자원화 방안」, 『도서문화』 제2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4; 고병석 외, 「제주유배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교육과학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05; 김경옥,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40집, 호남사학회, 2010; 양진권·김진철, 「유배문화의 스토리텔링 연구-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35집, 인문콘텐츠학회, 2015 등.
- 7) 본 논문에서 말하는 '호남유배인'은 호남출신 유배인이 아니라 호남지역에서 유배생활을 한 유배인을 의미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 현재 독립된 행정구역이지만 1946년 분리되기 이전에는 전남에 속했기 때문에 호남지역에 포함하였다.

논문에서는 유배인의 문헌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2장에서는 호남유배인의 현황을 간략히 살핀 후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를 살필 것이다. 이때 문헌자료는 유배인의 모든 저술이 아니라 유배지에서 작성했거나 유배와 관련이 있는 자료로 제한을 둘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의 활용방안으로서 문화콘텐츠화를 살펴볼 것이다. 유배한시 등을 담은 문집, 유배 중에 쓴 가사, 유배생활을 기록한 일기와 같은 문헌자료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다.

호남유배인에 대한 연구로는 제주 유배인을 정리한 양진건의 논저<sup>8)</sup>, 조선시대 전남지방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 활용을 살핀 김경옥의 논문<sup>9)</sup>, 조선후기 서남해 섬 유배인을 정리한 문화재청 기념 특별전 자료집<sup>10)</sup>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전 시기 호남유배인 928명에 대한 간략한 사전적 서술을 담은 호남지방문화연구원 연구소의 『호남유배인 기초목록』<sup>11)</sup>이 발간되었다.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은 전 시기, 호남 전 지역 유배인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조사 성과로서 인물순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인물명, 생몰연도, 유배지, 유배시기, 내용설명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책을 기초자료로서 활용하였으며, 기타 논저와 DB 조사도 병행하였다.

## 2. 호남유배인과 문헌자료

### 2.1. 호남유배인의 현황

호남지방문화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호남유배인은 928명에 이른다.<sup>12)</sup> 호남

8)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제주도 유배인 열전』, 문학과지성사, 1999.

9) 김경옥,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40집, 호남사학회, 2010.

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남해 섬과 유배문학』, 디자인문화, 2011.

11)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12)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의 수치를 따른 것으로, 본 절의 호남유배인 현황은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유배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호남유배인을 조사한 것이므로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호남유배인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에 유배인에 대한 설명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 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개질지(姜介叱知, 15세기)

- 유배지 : 장흥
- 유배시기 : 1463년

강개질지의 생몰년과 자세한 행적은 알기 어렵다. 다만, 《세조실록》 세조 9년 1월 27일 정사 2번째 기사〈유세의 사위 강개질지, 정효전의 사위 이증손 등을 방면하다〉에 장흥에 안치한 유세(劉世)의 사위 강개질지를 방면하라고 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장흥에 유배되었다가 1463년 1월에 방면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강민저(姜敏著, 1651~1705)

- 유배지 : 진도
- 유배시기 : 1695년

강민저의 자는 내숙(來叔), 호는 모산재(茅山齋),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무장(茂長) 출생이다. 1694년에 희빈장씨(禧嬪張氏)를 옹호하던 남구만(南九萬)을 탄핵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1695년에 남구만 일파의 죄를 규탄하는 소를 올렸다가 진도에 유배되었다. 3년 만에 풀려난 뒤 시골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학문을 닦는 일에 전념하였다.

《숙종실록》 숙종 21년 11월 22일 경진 4번째 기사〈유학 강민저가 간사한 신하를 물리치는 일로 응지 상소하다〉, 숙종 21년 12월 2일 경인 1번째 기사〈좌의정 유상운이 강민저의 국문에 대해 말하다〉 등을 통해 유배에 처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집 《모산집(茅山集)》에 유배에서 풀려난 후 쓴 시〈사환도수영차수백(敍還到水營次水伯)〉, 유배의 원인이 된 상소인〈갑술소(甲戌疏)〉와〈을해소(乙亥疏)〉, 그가 탄핵하던 남구만에게 쓴 편지인〈상남상(上南相)〉이 있어 유배 관련 사건과 감정을 알 수 있다.<sup>14)</sup>

13) 호남지방문화연구원, 앞의 책, 18쪽.

14) 호남지방문화연구원, 앞의 책, 19쪽.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은 인물명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으며, 위는 각각 책의 첫 번째 수록인물인 강개질지, 다섯 번째 수록인물인 강민저에 대한 내용이다. 위와 같이 인물명, 생몰연도, 유배지, 유배시기가 제시된 후 인물에 대한 간략한 전기적 사실, 유배관련 과정, 조선왕조실록의 유배관련 기사를 담고 있으며, 문헌자료가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담고 있다. 유배시기는 유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작시기나 종료시기만 있는 경우도 있고, 세기로만 표기된 경우도 있다. 또 유배지는 현대의 행정구역상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진도의 금갑도, 완도의 고금도, 신안의 흑산도와 같이 부속 섬을 알 수 있는 경우 섬 이름도 표기되어 있다.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의 유배시기를 바탕으로 호남유배인 928명의 시기별 현황<sup>15)</sup>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호남유배인의 시기별 현황

구분	유배인 수	비율(%)	비고
7세기	1	0.1	백제의 대신 흥수(興首)
12세기	6	0.6	
13세기	8	0.8	
14세기	26	2.8	1392년 조선 건국
15세기	114	12.2	
16세기	76	8.1	
17세기	112	12	
18세기	274	29.5	
19세기	279	30	
20세기	32	3.4	마지막 유배 1914년
총합	928	100	

15) 유배시작일과 종료일 중 하나만 아는 경우는 밝혀진 부분의 세기에 포함시켰으며, 유배시작일과 종료일의 세기가 다른 경우 시작일에 해당하는 세기에 인물을 포함시켰다.

가장 이른 시기의 호남유배인은 7세기 백제의 대신인 흥수(興首)로 의자왕에 대해 성충(成忠) 등과 함께 충언하다가 장흥에 유배되었으며, 가장 마지막 시기의 호남유배인은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여수 거문도에 유배된 일제강점기의 의병 임병찬(林炳瓚)이다.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에는 백제의 흥수 1명만이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12세기 6명, 13세기 8명이 확인되며, 고려와 조선이 교차하는 14세기 유배인 26명 중 12명이 조선이 건국된 1392년 이후에 유배된 인물로서 조선 건국을 반대하다 유배당한 인물이 많다. 14세기 유배인 26명 중 조선 건국 후 인물인 12명을 제외하면 14명이 고려시대 유배인으로, 전체 고려시대 유배인은 총 28명이다. 고려시대 유배인 중에는 1230년에 부안 위도에 유배되었던 이규보(李奎報)가 주목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호남유배인은 거의 조선시대 인물들이며, 특히 18-19세기에 전체유배인의 60%에 육박하는 유배인이 집중되어 있다. 호남유배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강진유배인 정약용, 제주유배인 김정희(金正喜)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조선후기에 당쟁으로 인한 유배가 많았고, 호남의 섬 지역들이 유배지로서 역할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듯하다. 20세기에는 1900년대 초반 일제에 대항하다 유배된 사람들이 많으며, 일제강점기가 본격화되면서는 제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유배인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아우르는 호남 전 지역 중 어느 곳에 유배인이 오게 되었을까? 이 또한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의 유배지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호남유배인 지역별 현황<sup>16)</sup>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의 353-362쪽에는 〈호남유배인 지역별 일람〉이 수록되어 있다. 강진, 고창을 시작으로 해남, 화순에 이르기까지 시군별로 유배인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 일람을 활용하여 수량을 확인하였다.

표 2. 호남유배인의 시기별 현황

구분	유배인 수	비율(%)	시·군별 구분	시·군별 유배인 수
광주	9	0.8	·	9
전남	685	67.4	강진	38
			고흥	45
			곡성	1
			광양	27
			구례	1
			나주	21
			담양	4
			목포	·
			무안	9
			보성	6
			순천	27
			신안	160
			여수	1
			영광	9
			영암	24
			완도	98
			장성	5
			장흥	25
			진도	109
함평	6			
해남	63			
화순	6			
전북	83	8.1	고창	1
			군산	9
			김제	7
			남원	9
			무주	6
			부안	22
			순창	3
			완주	2
			익산	9
			임실	2
			장수	2
			전주	5
			정읍	5
진안	1			
제주	239	23.5	·	239
총합	1,016	100		1,016

현재의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광주, 제주로 정리하였고, 전라남도 22개 시군<sup>17)</sup>과 전라북도 14개 시군<sup>18)</sup>은 시군 단위별 숫자까지 정리하였다. 유배인 전체수는 928명이나 1873년 제주에, 1876년 신안 흑산도에 유배된 최익현(崔益鉉)과 같이 호남의 다른 지역으로 두 차례 이상 유배되거나 유배 중 이배된 경우에는 호남의 두 지역 이상에 모두 그 사람이 포함되어, 위의 표에서 총합은 모두 1,016명이 되었다. 또한 최중(崔中)은 《세조실록》에 전라우도(全羅右道)에 충군한 최중을 석방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역단위 수량과 비율을 보면 광주가 9명으로 1%에 미치지 못하고, 전남은 685명으로 67%, 전북이 83명으로 8%, 제주가 239명으로 23%를 차지한다. 또한 유배인이 많은 전남지역 안에서 일부 지역에 유배인이 집중된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지역 안에서 유배인이 많은 지역은 160명인 신안, 109명인 진도, 98명인 완도의 순으로 세 지역을 합하면 367명, 전체 호남유배인의 36%에 해당한다. 여기에 제주 239명을 합하여 비율을 보면, 제주, 신안, 진도, 완도 네 지역의 총합이 606명, 전체의 59%가 된다. 곧 호남유배인 전체의 60%가 네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

제주는 한반도의 가장 남단에 있는 섬으로서 벽지(僻地), 절도(絶島)의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 신안, 진도, 완도도 남해안에 있는 섬 지역으로서 한양과 거리가 멀고 세상과 단절된 유배지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 시군 자체가 섬인데다가 크고 작은 부속 섬을 가지고 있어 각 부속 섬도 유배지로서 역할을 크게 하였다. 제주의 추자도, 신안의 임자도, 지도, 흑산도, 진도의 금갑도, 완도의 고금도, 신지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17) 5시 17군으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다.

18) 6시 8군으로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이다.

## 2.2.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

지금까지 호남유배인의 시기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호남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900명이 넘는 많은 유배인들이 다녀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배인들은 한양과 거리가 멀고 섬 지역인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호남에서의 유배생활을 담은 문헌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을 바탕으로 하되, 기타 논저, DB 등도 조사한 결과 호남유배인 중 124명이 문헌자료를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9)</sup> 여기에서 말하는 문헌자료는 문집(文集) 등과 같이 성책(成冊)되어 별도의 책으로 전해지는 것을 말하며, 작품만 남아 다른 사람의 책에 일부 수록된 경우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호남유배인의 시기별 현황

구분	유배인 수	문헌자료 보유 유배인 수	비율(%) (유배인 수 대비 문헌자료 보유 유배인 수 비율)
7세기	1		
12세기	6		
13세기	8	1	
14세기	26	2	
15세기	114	3	
16세기	76	16	
17세기	112	26	
18세기	274	40	
19세기	279	34	
20세기	32	2	
총합	928	124	13.3

19)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에 언급된 문헌자료 외에 필자가 추가 조사하여 포함시킨 문헌자료는 김광원(金光遠)의 『월봉실기(月峰實紀)』, 김약행(金若行)의 『선화유고(仙華遺稿)』·『적소일기(謫所日記)』, 김이익(金履翼)의 『금강영언록(金剛永言錄)』·『순칭록(循稱錄)』·『금강중용도가(金剛中庸圖歌)』, 이세보(李世輔)의 『신도일록(薪島日錄)』, 양회일(梁會一)의 『행사실기(杏史實記)』이다.

위를 통해 유배인 수가 많은 조선후기, 특히 18-19세기에 문헌자료를 보유한 유배인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은 유배인 수와 문헌자료 보유 유배인 수의 증감이 비례하는데, 15세기에는 유배인 수에 비해 문헌자료 보유 유배인 수가 적다. 이는 조선초기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15세기 '이시애(李施愛)의 난'과 같은 일에 연루되어 유배된 사람이 많았던 영향이 크다. 실제 이시애의 난과 관련하여 『예종실록』 예종 1년 2월 1일 병술 3번째 기사 <역적 이시애의 연좌인을 모두 속히 극변에 유배시키게 하다>에 노비가 된 사람들까지 연좌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중 호남에 유배된 인물이 모두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위의 표는 인물의 문헌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핀 것이기 때문에 조정(趙挺)의 『동사보유(東史補遺)』, 지석영(池錫永)의 『우두신설(牛痘新說)』과 같이 유배와 관련이 없는 문헌자료들도 포함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화구암란묵(畫鷗龕譚墨)』, 『우해악암고(又海嶽庵稿)』, 『수경재해외적독(壽鏡齋海外赤牘)』, 『석우망년록(石友忘年錄)』을 남긴 조희룡(趙熙龍)과 같이 2종 이상의 문헌자료를 남긴 유배인도 있기 때문에 문헌자료의 수량은 유배인 수보다 많다. 이는 전체적인 현황을 조감해보고자 제시한 것으로, 이제 이러한 문헌자료 중에서 유배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도 유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자료만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화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유배인의 문헌자료 중 주목되는 것은 먼저 문집이다. 한시, 서간, 일기, 상소 등 저자가 평생 지은 글을 망라하여 수록하여 유배와 관련한 다양한 작품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유배인의 문헌자료 중 문집이 양적으로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헌자료가 있는 124명의 호남유배인 중 문집이 확인된 인물은 현재 106명에 이른다. 호남유배인의 문집 중 가장 이른 시기 인물의 것은 1230년 전북 부안에 유배된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고, 가장 늦은 시기 인물의 것은 1914년 전남 여수 거문도에 유배된 임병찬의 『둔헌문집(澗軒文集)』이다. 이규보의 문집에는 <십이월이십육일(十二月二十六日) 장입위도범주(將入猶島泛舟)>, <효등려사루(曉登旅舍樓)>와 같이 유배지에서 쓴 시가 수록되어 있고, 임병찬의 문집에는 거문도 유배 때 쓴 일기인 <거문도일기(巨文

島日記)가 수록되어 있어, 문집 안에 호남유배 관련 작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지면 관계 상 106종의 문집을 모두 제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유배 관련 중요한 작품을 담은 문집을 예로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호남유배인의 문집 예시

순번	이름	유배지	유배시기	문집명	특징
1	김정 (金淨, 1486-1521)	진도 제주	1520 -1521년	『충암집 (冲菴集)』	- 권3에 진도와 제주 유배 중에 지은 시를 모은 「해도록(海島錄)」, 「문견록(聞見錄)」, 권4에 제주 유배생활을 기록한 산문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수록.
2	노수신 (盧守愼, 1515-1590)	순천 진도	1547 -1567년	『소재집 (蘇齋集)』	- 권1-6 1,499편의 시 중 약 1,000여 편에 이르는 유배지에서 쓴 시 수록. - 유배지에서 성리학적 의론을 적은 〈숙흥야매잡해(夙興夜寐箴解)〉, 〈인심도심변(人心道心辨)〉, 〈집중설(執中說)〉 등 수록.
3	김춘택 (金春澤, 1670-1717)	부안 제주 군산	1701년 1706년 1710년	『북헌집 (北軒集)』	- 제주 유배 중 지은 시를 「수해록(囚海錄)」에, 군산 이배 후 지은 시를 「취산록(鷺山錄)」에 수록. - 제주 유배 시절 지은 〈잠녀설(潛女說)〉, 제주로 이배 될 때의 일을 기록한 〈섭해록(涉海錄)〉, 1710년 입피로 이배될 때 일을 기록한 〈인섭해록(寅涉海錄)〉 수록. - 제주 유배가사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수록.
4	임징하 (任徵夏, 1687-1730)	제주	1727년	『서재집 (西齋集)』	- 순안현에서 제주 대정현으로 이배되는 약 1개월간의 여정을 기록한 일기인 〈수안록(隨雁錄)〉, 유배지에서 지은 한시를 시기별로 분류해 놓은 「남천록(南遷錄)」, 「감산록(柑山錄)」 등 수록.

순번	이름	유배지	유배시기	문집명	특징
5	김성탁 (金聖鐸, 1684-1747)	제주 광양	1737 -1747년	『제산집 (霽山集)』	- 권1에 한라산의 역사, 지형을 읊은 <한라산가(漢拏山歌)>, 까마귀를 소재로 유배지의 산수, 풍물을 읊은 장편시 <화진아탐라오가(和晉兒耽羅鳥歌)> 등 수록.
6	김치후 (金致厚, 1692-1742)	부안	1738 -1739년	『사촌집 (沙村集)』	- 권2에 유배의 계기가 된 <사대사간 겸진소회소(辭大司諫兼陳所懷疏)> 수록. - 권3에 유배를 당하는 과정을 기술한 <남찬록(南竄錄)> 수록.
7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강진	1801 -1818년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처음 거거하였던 집의 기문인 <사의제기(四宜齋記)>, 다양한 한시, 아들에게 보낸 편지 등 수록.
8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제주	1840 -1848년	『완당선생전 집(阮堂先生 全集)』	- 권3-5에 유배지에서 쓴 편지 다수 수록. 권3에 수록된 이재(彝齋) 권돈인(權敦仁)과 주고받은 편지 35편은 대부분 제주 유배지에서 쓴 편지임.
9	조희룡 (趙熙龍, 1789-1866)	신안	1851 -1853년	『우해악암고 (又海嶽庵稿)』	- 임자도에 유배 갈 때부터 해배되어 한양으로 가는 길에 금강(錦江)을 건널 때까지의 경험을 적은 시를 시기순으로 수록.
10	최익현 (崔益鉉, 1833-1906)	제주 신안	1873 -1875년 1876 -1879년	『면암집 (勉菴集)』	- 두 차례 유배의 원인이 된 상소인 <사호조참판겸진소회소(辭戶曹參判兼陳所懷疏)>, <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議疏)> 수록. - 제주 유배 중에 한라산을 등반한 일을 기록한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신안 흑산도 유배 중에 기록한 <지장암기(指掌岵記)> 수록.
11	김윤식 (金允植, 1835-1922)	제주 신안	1898 -1907년	『운양집 (雲養集)』	- 제주 유배 중 지은 시를 권5의 「영도고(瀛島稿)」에, 신안 지도 유배 중 지은 시를 권6의 「동둔고(東菴稿)」에 수록.

김정의 『충암집』, 김춘택의 『북헌집』, 임징하의 『서재집』 등과 같이 호남의 유배지에서 쓴 한시가 시록(詩錄)의 형태로 여러 수 들어 있는 문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약용, 김정희의 문집에서처럼 유배지에서 사람들과 주고 받은 편지도 문집 안에서 볼 수가 있다. 또한 유배지에서 쓴 일기나 유기, 유배와 관련한 상소문이 수록된 문집도 다수 확인되며, 많진 않지만 김춘택 문집과 같이 유배가사를 담고 있는 문집도 보인다.

조희룡의 경우에는 유배시기의 전 과정을 시로 기록한 문집 『우해약암고』 외에 임자도에서 쓴 화론적(畫論的) 성격의 글을 모은 『화구암란목』, 임자도 유배 중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 편집한 『수경재해외적독』 등도 있어서 주목된다. 조희룡은 문인서화가로서 임자도에서 그림도 많이 남겼으며, 그가 유배 당시 생활했던 임자도 남쪽 이흑암리에는 ‘조희룡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sup>20)</sup> 임자도 유배인 중 조희룡이 주목받는 것에는 그의 유배생활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헌자료가 충분히 기여를 했을 것이다.

호남유배인의 문집 중에는 위 표와 같이 많은 작품은 아니더라도 유배관련 글들이 들어있고, 남아있는 호남유배인 문집 자체의 수량이 많아서 문집은 호남유배인에 대한 자료로서 활용가능성이 크다.

유배인의 문헌자료 중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일기이다. 일기는 문집 안에 수록된 경우도 있지만, 일기 자체가 단독으로 전하는 경우도 있다.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 중 일기가 단독으로 전해지는 경우는 현재 9종을 확인하였다. 이중 호남유배생활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일기는 6종으로 다음 표와 같다.

20) 한영규, 「19세기 여항문인 조희룡의 유배와 신안 임자도」, 『국제어문』 제59집, 국제어문학회, 2003, 93쪽. 조희룡이 남긴 문헌자료 전체는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에서 번역하여 『조희룡전집』(한길아트, 1999)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으며, 조희룡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소개한 이선옥의 저술 『우봉 조희룡』(돌베개, 2017)도 최근 출간되었다.

표 5. 호남유배인의 일기

순번	이름	유배지	유배시기	일기명	내용
1	황중윤 (黃中允, 1577-?)	해남	1623년 경	『남천록 (南遷錄)』	- 후손가인 평해황씨 해월종택 소장된 고서로서, 해남 유배시의 일기.
2	김약행 (金若行, 1718-?)	신안 진도	1768년 -1771년 1781년	『적소일기 (謫所日記)』	- 1781년 4월 진도 금갑도로 이배 될 때부터 1788년 1월까지의 일을 언문으로 기록한 일기.
3	이우 (李瑀, 1739-1811)	완도	1806년	『병인일기 (丙寅日記)』	- 완도 고금도 유배일기로, 그의 아들인 이병탁(李秉鐸)에 의해 옮겨짐.
4	이세보 (李世輔, 1832~1895)	완도	1860년	『신도일록 (薪島日錄)』	- 완도 신지도에서의 유배생활을 담은 한글 유배일기로, 시조 95수를 담고 있음.
5	김령 (金樞, 1805-1865)	신안	1862년	『간정일록 (艱貞日錄)』	- 1862년 6월 4일부터 1863년 12월 30일까지의 일기로, 유배에 처해지는 과정과 1년 남짓의 신안 입자도 유배생활이 중심이 됨.
6	정만조 (鄭萬朝, 1858-1936)	진도	1896년	『은파유필 (恩波濡筆)』	- 1896년부터 1907년까지 진도 금갑도 유배 중에 쓴 일기임.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김진형(金鎭衡)의 『북천록(北遷錄)』,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史)』가 전해진다. 그러나 『북천록』은 호남지방이 아닌 명천을 유배할 때의 일기이고, 『미암일기』는 유배 이후의 삶이 주로 담긴 일기이며, 『속음청사』는 호남유배기간의 일기도 담고 있지만 그 전후로 더 많은 시기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표에 넣지 않았다. 위 표의 일기들은 호남 유배기간에 쓴 일기들로서 문헌자료 수는 문집에 비해 적지만 유배인의 구체적인 생활과 감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문집, 일기 외에 시가집으로서 김이익(金履翼, 1743-1830)이 남긴 『금강영언록(金剛永言錄)』, 『금강중용도가(金剛中庸圖歌)』도 주목된다. 『금강영언록』은 필사본

시조집으로 김이익이 진도 금갑도 유배 때 지은 50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전하며, 『금강중용도가』 또한 김이익이 진도 유배 때 공부 과정을 가사로 작성한 것이다.

이 외에 유배인이 호남 유배지에서 쓴 학술적 저술도 의미 있는 문헌자료라 할 수 있다. 정온(鄭蘊, 1569-1641)이 제주 유배 중 집필한 『덕변록(德辨錄)』,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제주 유배 중 집필한 『논맹혹문정의통고(論孟或問精義通攷)』, 심낙수(沈樂洙, 1739-1799)가 고흥 유배 중 집필한 『정변록(定辨錄)』, 김이익(金履翼, 1743-1830)이 진도 유배 중 집필한 『순칭록(循稱錄)』,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이 신안 흑산도 유배 중 집필한 『자산어보(玆山魚譜)』 등이 해당된다. 김이익은 진도 유배 중에 시조집, 가사집도 남긴 인물로서, 그가 유배 중 집필한 『순칭록』은 유배지인 진도 사람들을 위해 예의범절 지침서가 되도록 집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약전의 『자산어보』 또한 유배지인 흑산도 근해의 수산생물을 직접 관찰하여 집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른 글들도 내용적으로는 유배와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유배 중에 유배지에서 집필을 했다는 점에서 유배인의 삶을 보는 한 매개가 될 수 있다.

### 3.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의 문화콘텐츠화

지금까지 호남유배인의 시기별, 지역별 현황과 그들의 문헌자료, 그 중에서도 유배관련 문헌자료를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헌자료의 양이 방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특징이 드러나는 극히 일부분만을 언급하였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928명에 이르는 호남유배인, 그중 124명에 이르는 유배인이 남긴 문헌자료는 유배문학의 체계적 정리, 지역학 연구, 유배경위 파악, 유배생활 파악 등 학술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고 호남유배인 문헌자료가 문화콘텐츠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는 문화콘텐츠화에 집중하여 활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나경수는 고전시가와 문화콘텐츠를 논하면서 “역사의 노폐물이며, 어떤 점에서는 폐기처분되어야 할 문화로 간주되던 잔존문화가 이제 국면을 달리하게 되면서 문화산업시대에 이르러 하나의 새로운 유력한 문화원형자원으로서 재생문화로의 재등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과 연계된 모든 분야에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up>21)</sup>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도 문화원형자원으로서 현대에 충분히 가공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 중 특히 세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호남유배인 문헌자료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미디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과 최근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매체 등이 있다. 호남유배인 문헌자료는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것들 중 스토리가 있는 만화, 드라마, 영화 등에 유배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주요한 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배로 인한 드라마틱한 경험은 충분히 스토리로 재탄생하여 만화, 드라마, 영화의 원형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호남의 영암과 해남에 유배된 남유상(南有常, 1696-1728), 남유용(南有容, 1698-1773) 형제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sup>22)</sup> 남유상은 1727년 소론(少論)의 영수인 이광좌(李光佐)가 춘추관총재가 되자 동료 신만(申晩)과 함께 병을 핑계대고 직무에 나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만과 함께 영암에 유배되었다가 두 달 만에 풀려났으며, 다음해에 병으로 일찍 사망하였다. 남유용은 1741년 10월에 간관은 의리를 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임무이므로 필요하다면 시비를 끝없이 따져야 한다는 간관지책(諫官之責)에 대한 상소를 올린 일로 해남에 유배되었다. 해남은 영암 아래 쪽에 있는 지역으로 동생인 남유용은 1741년 유배지인 해남으로 가는 중에 형이 1727년 유배시절 머물렀던 영암의 거처에 머물게 된다. 세상

21) 나경수, 「고전시가와 문화콘텐츠」,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6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8-10쪽. 같은 논문 10쪽에서 나경수가 언급한 콘텐츠 분야는 디지털콘텐츠, 웰빙콘텐츠, 훈련콘텐츠, 스포츠콘텐츠, 가요콘텐츠, 관광콘텐츠, 홍보콘텐츠, 복지콘텐츠, 레포츠콘텐츠, 교육콘텐츠, 축제콘텐츠, 영상콘텐츠, 무대콘텐츠 등이다.

22) 남유용, 남유상 및 그들의 문집에 대한 설명은 호남지방문화연구원소의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85-86쪽) 참조.

을 떠난 지 10여 년이 된 형의 과거 유배거처에, 자신도 똑같이 유배 가는 처지가 되어 머물게 되는 심회는 어떠했을까?

두 형제의 상황은 매우 드라마틱하여 현대에도 충분히 이야깃거리가 될 소재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문집을 남겨, 문집 안에서 이와 관련한 작품을 확인할 수가 있다. 형인 남유상의 문집 『태화자고(泰華子稿)』에는 영암으로 유배갈 때 전송하러 나온 아우에게 써 준 <적낭주사제송지사천임별서기선면(謫朗州舍弟送至沙川臨別書其扇面)>, 유배에 담대하게 대응한 한유를 본받겠다는 <독한자(讀韓子)> 등이 실려 있고, 아우인 남유용의 문집 『뇌연집(雷淵集)』에는 처음 유배를 명받고 밤에 출발하면서 말 위에서 읊은 시 <십월이십삼일상장론사몽은적해남야출동강마상유음(十月二十三日上章論事蒙恩謫海南夜出東江馬上有吟)>, 해남으로 가던 중 1727년에 영암으로 유배와 다음해에 죽은 백형(伯兄) 남유상이 두 달 남짓 머물며 유배생활을 하던 집에 묵었을 때 쓴 시 <지낭주숙조생명조가즉백씨천낭시거정처야(至朗州宿曹生命肇家即伯氏遷朗時居停處也)> 등이 있다. 이러한 문헌자료를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원형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1579년 화순 능주에 유배 와 사사되기 직전에 남긴 <절명시(絕命詩)>(문집 『정암집(靜菴集)』 내에 수록),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1689년 진도에 유배 와 사사되기 전에 남긴 <문후명(聞後命)>, <정제손명서시아배(定諸孫名書示兒輩)>(문집 『문곡집(文谷集)』 내에 수록) 등도 스토리텔링을 거쳐 원형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일기 속에는 유배인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다양한 스토리를 찾아 내어 미디어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호남유배인 문헌자료 중 중요한 것으로 일기를 살폈었다. <표 5> 에서 제시한 단독으로 전해지는 일기 외에도 문집 내에 전해지는 일기도 있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유배인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다양한 이야기 요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표 6. 문집 내에 수록된 유배일기 일부

순번	이름	유배지	유배시기	일기	내용
1	김간 (金侃, 1653-1735)	광양	1701년	〈광양적행일기 (光陽謫行日記)〉 (문집 『죽봉문집(竹峯文集)』 내에 수록)	- 광양으로 유배갈 때 의 일을 기록한 일기.
2	송상기 (宋相琦, 1657-1723)	강진	1722 -1723년	「남천록(南遷錄)」 (문집 『옥오재집(玉吾齋集)』 내에 수록)	- 강진 유배생활 중의 일기, 시,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기록됨.
3	임징하 (任徵夏, 1687-1730)	제주	1727년	〈수안록(隨雁錄)〉 (문집 『서재집(西齋集)』 내에 수록)	- 제주 순안현에서 제 주 대정현으로 이배 되는 약 1개월간의 여 정을 기록한 일기.
4	이기경 (李基敬, 1713-?)	해남 신안	1748년	〈해상일록(海上日錄)〉 (문집 『목산고(木山藁)』 내에 수록)	- 해남 유배생활을 기록한 일기
5	임병찬 (林炳瓚, 1851-1916)	여수	1914년	〈거문도일기(巨文島日記)〉 (문집 『둔헌문집(澗軒文集)』 내에 수록)	- 여수 거문도에서의 유배생활을 기록한 일기.

위는 문집 내에 전해지는 일기 중 호남 유배생활을 담은 일기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으로, 문집을 세세히 살펴보면 더욱 많은 유배일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이 운영하는 누리집 ‘스토리테마파크: 일기와 생활’ (<http://story.ugyo.net/>)은 한국의 일기에서 다양한 이야기 요소를 추출하여 제공하여 이 이야기 요소들이 만화, 드라마, 영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는 웹상에서 보는 만화인 웹툰도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일기 속 이야기 요소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다. 호남유배인의 일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유배관련 이야기 요소를 제공하여 미디어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호남유배인 문헌자료는 관광콘텐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유배는 일정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유배인이 머물렀던 호남의 지역들은 관광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때 이 관광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이다.

최한선은 송강가사의 문화콘텐츠화 방향을 논하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문화콘텐츠화 사례를 언급하였다. 그중 한 예로 안동시에서 <원이 엄마의 편지>를 문화콘텐츠화한 사례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원이 엄마의 편지>는 안동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31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남편을 그리는 애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이다. 이를 활용하여 만든 월용교, 아가페상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고, 오페라, 뮤지컬, 가요제, 무용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도 만들어졌다.<sup>23)</sup>

이는 편지 한 통이 안동시의 주요한 관광콘텐츠로 활용된 예로서, 호남유배인의 다양한 문헌자료 또한 주요한 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에 담긴 것 중 유배가사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 7. 호남유배인의 가사 일부

순번	이름	유배지	유배시기	가사	내용
1	조위 (曹偉, 1454-1503)	순천	1500년	<만분가(萬憤歌)> (문집 『매계집(梅溪集)』 내에 수록)	- 순천에 이배된 후에 지은 장편 유배 가사.
2	홍섭 (洪暹, 1504-1585)	고흥	1535년	<원분가(冤憤歌)>	- 고흥 유배지에서 자 신의 심경을 노래한 가사.
3	김춘택 (金春澤, 1670-1717)	부안 제주 군산	1701년 1706년 1710년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문집 『북헌집(北軒集)』 내에 수록)	- 제주에 유배되었던 중에 지은 가사.
4	안조원 (安肇源, 18세기)	제주	18세기	<만언사(萬言詞)>	- 34세에 추자도로 귀 양 가서 풀려날 때까 지의 비참하였던 모 습을 노래한 가사. - 필사본에 따라 작자 명 안도환으로 기록 되어 있기도 함.

23)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 콘텐츠화 방향」,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358-362쪽.

순번	이름	유배지	유배시기	가사	내용
6	김이익 (金履翼, 1743-1830)	진도	1800년	『금강중용도가 (金剛中庸圖歌)』	- 진도의 금강도 유배 때 공부 과정을 담은 가사.
7	채귀연 (蔡龜淵, 19세기)	완도	1863년	〈채환재적가(蔡畝再謫歌)〉	- 자신이 유배되는 과정과 유배지에서의 심경을 담은 가사.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에 담긴 시조, 가사, 한시 등 여러 운문 중에서 가사만을 예로 든 것으로, 이것만 한정하여 보아도 순천, 고흥, 제주, 진도, 완도 등 여러 시군 지역이 등장한다. 해당 시군에서는 유배인들의 유배지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이들의 유배가사를 낭송하는 행사, 가사 속에 등장하는 장소를 체험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여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시의 경우 유배지에서 쓴 한시만을 시록으로 묶어 문집에 실을 정도로 많은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등 다양한 유배문학 작품을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작품도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유배지역에 관한 글들도 다양하게 확인된다.

표 8. 유배지역 관련 주목되는 작품 일부

순번	이름	유배지	유배시기	작품	내용
1	정도전 (鄭道傳, 1342-1398)	나주	1375년	〈소재동기(消災洞記)〉 (문집 『삼봉집(三峯集)』 내에 수록)	- 유배지 나주의 풍물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묘사.
2	이주 (李胄, ?-1504)	진도 제주	1498년 1504년	〈금골산록(金骨山錄)〉 (문집 『망헌집(忘軒集)』 내에 수록)	- 진도 유배 중에 금골산에 다녀왔던 일을 기록한 유키.
3	김정 (金淨, 1486-1521)	진도 제주	1520 -1521년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문집 『충암집(沖菴集)』 내에 수록)	- 제주 유배생활을 기록한 산문.
4	이건 (李健, 1614-1662)	제주	1628년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문집 『규창집(葵窓集)』 내에 수록)	- 제주 유배시절인 1628년부터 1635년까지의 들은 바를 기록한 한문수필.

순번	이름	유배지	유배시기	작품	내용
5	김춘택 (金春澤, 1670-1717)	부안 제주 군산	1701년 1706년 1710년	〈잠녀설(潛女說)〉 (문집 『북헌집(北軒集)』 내에 수록)	- 제주 유배 중에 해녀 에 대해 기술한 산문.
6	임징하 (任徵夏, 1687-1730)	제주	1727년	〈제주잡시(濟州雜詩)〉 (문집 『서재집(西齋集)』 내에 수록)	- 제주의 풍물을 읊은 20수의 시.
7	김성탁 (金聖鐸, 1684-1747)	제주 광양	1737 -1747년	한라산가(漢拏山歌), 〈화진이따라오가 (和管兒耽羅鳥歌)〉 (문집 『제산집(濟山集)』 내에 수록)	- 〈한라산가〉는 제주 한라산의 역사, 지형 을 읊은 시. 〈화진이 따라오가〉는 까마귀 를 소재로 유배지 제 주의 산수, 풍물을 읊 은 장편시.
8	최익현 (崔益鉉, 1833-1906)	제주 신안	1873 -1875년 1876 -1879년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문집 『면암집(勉菴集)』 내에 수록)	- 제주 유배 중에 한라 산에 다녀왔던 일을 기록한 유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배지역의 풍물과 생활상을 기록한 기문, 유배지역의 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유기, 유배지역인 제주도의 해녀에 대한 글, 유배지역에 대해 읊은 시 등 유배지역과 밀접한 글들이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는 예시만 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글들은 유배지역을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게는 해당 지역 홍보 영상에 위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크게는 이들이 다녔던 지역 자체를 관광코스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철·양진건은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사례를 중심으로 유배문화 스토리텔링을 살피면서 추사 김정희의 유배 서사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화한 사례로 추사 유배길을 언급하였다. 집념의 길, 인연의 길, 사색의 길로 이루어진 이 코스에는 한시, 편지, 한글편지 등 문헌자료가 활용되었다.<sup>24)</sup> 이처럼 호남유배인의 문헌

24) 김진철·양진건,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연구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35집, 인문콘텐츠학회, 2015, 196-197쪽.

자료는 호남지역 다양한 시군의 관광자원화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호남유배인 문헌자료는 교육콘텐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사학·문학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나 고전문학은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호남유배인 문헌자료는 이런 교육을 시행할 때 유배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유배문학을 어렵지 않게 다가가게 하는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예로 유배지역을 정할 때 죄가 중할수록 한양에서 먼 곳으로 가며, 고향과 가까운 곳은 기피하는 역사적 사실과 유배 중 이배가 일어나는 사실을 말로만 설명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경우 함경도 종성에서 19년간 유배생활을 하여 종성 유배기 한시 143수를 대상으로 한 박명희의 연구 논문<sup>25)</sup>이 있는 등 종성 유배에 대해서 익히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종성 유배 전에 먼저 제주도에 유배되었으며, 고향에 가깝다하여 곧이어 종성으로 이배되었다. 제주 유배기간은 6개월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짧지만 문집 안에는 제주도 유배 중에 지은 한시가 담겨 있다.

茫茫無涘隘乾坤 아득히 끝없어 하늘과 땅이 닿아 있는데  
 東極扶桑半夜暎 동쪽 끝 부상에서 한밤중에 해 솟네  
 海氣新從秋氣爽 바다는 신선하게 가을 기운 따라 상쾌하고  
 波光長與日光翻 길게 일렁이는 파도 햇빛 받아 번쩍이네  
 琉球萬里真堪玩 유구의 만 리 길 구경할 만하니  
 龜首三山不必論 자라 머리 삼신산은 논할 것도 없으라  
 曾到耽羅南北遍 일찍이 탐라에 와서 남북을 돌아다녔는데  
 溟邊一髮是靑原 바닷가 아득한 저 곳이 청원이라네<sup>26)</sup>

25) 박명희, 「미암 유희춘 시문에 나타난 종성 유배기 활동 양상」,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26) 유희춘 저, 박명희·안동교 역, 〈바다를 보고[觀海]〉, 『미암집 1』, 경인문화사, 2013, 198쪽.

위는 미암 유희춘이 제주도 유배 중에 쓴 것으로 파악되는 한시이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이러한 유희춘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집 안에 수록된 한시를 함께 활용한다면 한양에서 가장 먼 곳이라 할 수 있는 제주로의 유배, 고향인 해남과 제주도가 가깝다하여 행해진 함경도 종성으로의 이배 등의 역사적 상황과 짧은 제주 유배생활 중에 쓴 한시 등 유배문학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시는 1862-1863년 신안 임자도에 유배되었던 김령(金穰, 1805-1865)이 유배지인 임자도에 도착한 날 지은 시이다.

在子島浮海一方 바다 한 모퉁이에 임자도 떠 있는데  
 孤舟來泊趨斜陽 외로이 배 한 척 석양 무렵에 닿았네  
 天風送客鯨波裂 나그네 보내는 하늘 바람에 큰 파도 갈라지고  
 鎮法關人蟹屋荒 진법으로 사람을 가두는 해옥은 거칠어라  
 摠是君恩身不死 모두가 임금의 은혜로 이 몸 죽지 않았으니  
 莫非王土處無傷 어느 곳인들 임금의 땅 아니라 상심할 것 없다네  
 家兒何罪蒙艱險 아들이 무슨 죄로 험난함을 당하는가  
 慚愧人間未父良 좋은 아버 못되어 인간으로서 부끄럽네<sup>27)</sup>

시를 통해 유배지에 막 도착한 유배인의 심란한 마음상태를 볼 수 있으며, 시의 마지막에 함께 고생한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도 볼 수 있다. 이 시는 『간정일록』이라는 일기 속에 들어 있어 유배의 상황을 일기로도 파악할 수 있는데, 경상도 단성 사람인 김령이 전라도 신안 임자도로 유배될 때 아들 김인섭이 동행하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1년 남짓의 임자도 유배 중에 한 번 아버지를 뵙기 위해 방문하며, 김령이 해배될 때도 동행하였다. 이러한 일기와 한시를 활용하여 유배지로의 이동시 가족이 동행하는 상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한시를 통해 당시의 감정까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헌자료를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때는 이 자료를 활자화된 글자로만 제공한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유희춘이 제주도에서 바라봤던 드넓은 바다,

27) 金穰, 『艱貞日錄』, 1862년 9월 4일; 김령 저, 오덕훈·심수철 역, 『해기옹 김령의 임자도 유배생활』(『艱貞日錄』, 『歷代千字文』), 민속원, 2016, 75-76쪽.

김령이 배를 타고 바라봤던 임자도의 모습 등을 사진자료로 함께 제공하고, 제주도에서 함경도 종성으로의 이동경로, 경상도 단성에서 전라도 신안 임자도로의 이동경로를 나타낸 지도자료 등과 문헌자료 원본, 번역본 등을 함께 교육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한다면 역사, 문학 교육에 흥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지방문헌연구소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을 발굴·집대성·콘텐츠화하고 그 결과물을 DB로 제공하는 누리집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or.kr/>)에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 아래 13편의 애니메이션이 제공되고 있다. 2-4분 가량 된 이 애니메이션들은 김인후, 하백원 등 호남의 인물과 〈미암일기〉, 〈유서석록〉 등 주요 문헌자료를 친숙한 그림체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이는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교육콘텐츠로서,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도 이처럼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제공하여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호남유배인과 그들이 남긴 문헌자료의 현황을 살피고, 문헌자료의 활용방안으로서 문화콘텐츠화를 간략히 제시해 보았다. 먼저 2장의 1절에서는 호남유배인 928명의 시기별, 지역별 현황을 살폈는데, 시기별로는 7세기 1명, 12세기 6명, 13세기 8명, 14세기 26명, 15세기 114명, 16세기 76명, 17세기 112명, 18세기 274명, 19세기 279명, 20세기 32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에는 1명만이 확인되며, 고려시대에는 28명에 불과하였다. 조선시대에도 18-19세기에 전체유배인의 60%에 육박하는 유배인이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9명으로 1%에 미치지 못하고, 전남은 685명으로 67%, 전북이 83명으로 8%, 제주가 239명으로 23%를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배인이 많은 전남지역 안에서 일부 지역에 유배인이 집중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지역 안에서 유배인이 많은 지역은 160명인 신안, 109명인 진도, 98명인 완

도의 순으로 세 지역을 합하면 367명, 전체 호남유배인의 36%에 해당되었다. 여기에 제주 239명을 합하여 비율을 보면, 제주,新安, 진도, 완도 네 지역의 총합이 606명, 전체의 59%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2장의 2절에서는 호남유배인 928명의 문헌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헌자료는 성책(成冊)되어 별도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 중 주목되는 것으로 문집, 일기, 시가집, 학술적 저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문집은 106종을 확인하였으며, 유배지에서 쓴 한시가 시록(詩錄) 형태로 들어있는 문집, 유배지에서 사람들과 주고 받은 편지가 다수 수록된 문집, 유배지에서 쓴 일기나 유기, 유배와 관련한 상소문이 수록된 문집을 다수 확인하였으며, 많진 않지만 유배가사를 담고 있는 문집도 볼 수 있었다. 호남유배인의 문집 자체의 수량이 많아서 문집은 호남유배인에 대한 자료로서 활용가능성이 큼을 확인하였다.

일기는 9종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호남 유배생활을 집중적으로 담은 일기는 6종이었다. 문헌자료 수는 문집에 비해 적지만 유배인의 구체적인 생활과 감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큼을 확인하였다. 문집, 일기 외에 시가집으로서 김이익이 남긴 『금강영언록』, 『금강중용도가』도 주목되었으며, 이 외에 유배인이 호남 유배지에서 쓴 학술적 저술도 의미 있는 문헌자료라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의 활용으로서 문화콘텐츠화를 살폈다. 현대에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고 호남유배인 문헌자료가 문화콘텐츠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의 구체적 예시를 통해 문화콘텐츠화를 살펴본 결과 미디어콘텐츠, 관광콘텐츠, 교육콘텐츠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호남유배인 문헌자료에 담긴 유배로 인한 드라마틱한 경험은 충분히 스토리로 재탄생하여 만화,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의 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배인이 머물렀던 호남의 지역을 관광지로 활성화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호남유배인 문헌자료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또 호남유배인 문헌자료는 유배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유배문학을 어렵지 않게 다가가게

하는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호남유배인의 현황과 그들이 남긴 문헌자료를 살핀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논문에서는 자료를 정리 및 분류하여 일부를 소개하고, 활용으로서 문화콘텐츠화를 제시하는 것까지만 진행하였다. 추후 호남유배인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남해 섬과 유배문학』, 디자인문화, 2011.
- 김령 저/오덕훈·심수철 역, 『해기웅 김령의 입자도 유배생활 <艱貞日錄>, <歷代千字文>』, 민속원, 2016.
-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조희룡전집 1-6』, 한길아트, 1999.
-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제주도 유배인 열전』, 문학과지성사, 1999.
- 유희춘 저/박명희·안동교 역, 『미암집 1』, 경인문화사, 2013.
- 이선옥, 『우봉 조희룡』, 돌베개, 2017.
- 호남지방문헌연구소,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스토리테마파크: 일기와생활(<http://story.ugyo.net/>)  
 유교넷(<http://www.ugyo.net/>)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or.kr/>)

### 2. 논저

-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제67집, 역사문제연구소, 2004, 262-282쪽.  
 (UCI: G704-000293.2004..67.003)
- 김경옥,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 연구』 제40집, 호남사학회, 2010, 147-190쪽.  
 (UCI: G704-001257.2010..40.001)
- 김진철·양진건,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연구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35집, 인문콘텐츠학회, 2015, 185-206쪽.  
 (UCI: G704-001814.2015..36.002)
- 나경수, 「고전시가와 문화콘텐츠」,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6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5-27쪽.  
 (UCI: G704-001062.2015..36.009)

- 박명희, 「미암 유희춘 시문에 나타난 중성 유배기 활동 양상」,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115-142쪽.  
(UCI: G704-001062,2012,..29.005)
- 신규수,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제2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137-169쪽.  
(UCI: G704-SER000014556,2012,23..006)
-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 콘텐츠화 방향」,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345-399쪽.  
(UCI: G704-001062,2014,..33.007)
- 한영규, 「19세기 여항문인 조희룡의 유배와 신안 입자도」, 『국제어문』 제59집, 국제어문학회, 2003, 75-107쪽.  
(UCI: G704-000774,2013,..59.003)

| Abstract |

## Historical Documents of Honam-exiled Figures and Cultural Contents

Kim, Dae-hyun·Kim, Mi-sun

This paper examines Honam-exiled figures and the literary documents left by them and briefly proposed cultural contentsization as their utilization measures. First, Honam-exiled 928 figures were examined by time and region. By time, there was one in the 7th century; six in the 12th century; eight in the 13th century; 26 in the 14th century; 114 in the 15th century; 76 in the 16th century; 112 in the 17th century; 274 in the 18th century; 279 in the 19th century; and 32 in the 20th century. Most of the exiles were found to have lived in the Joseon period. By region, there was nine in Gwangju, accounting for less than 1%; 685 or 67% in Jeollanam-do; 83 or 8% in Jeollabuk-do; 239 or 23% in Jeju.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nn Jeollanam-do with many exiles, exiles concentrated in some islands such as Jeju, Sinan, Jino and Wando.

Of literary documents left by Honam-exiled figures, noteworthy documents were found to be literary collections, diaries and poem collections. In particular, for literary collections, 106 kinds were found. Literary collections included classical Chinese poems in the form of poem records, letters exchanged between people in the exile areas, diaries, and pleas to the kings in connection with exiles. There was also a few collections of Gasa (a form of poetry) on exiles. Diaries offered a vivid look into the specific life and feelings of exiles, make them worthy of use. In addition, literary collections of Sijo and Gasa (types of poetry) written by exiles in Honam, as well as academic writings authored by exiles were found to be very valuable data.

Lastly, cultural contentsization examined as the proposed measure for using Honam-exiled figures' literary documents. This is because the demand for cultural contents is high in contemporary times and Honam-exiled figures' literary document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cultural contentsiz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cultural contents by citing specific examples of Honam-exiled figures' literary documents, it is confirmed that they are highly applicable in the media contents, tourism contents, and educational contents areas.

Key words : Honam, exile, literary documents, literary collection, exile gasa,  
classical Chinese exile poems, exile diaries, cultural contents